

여성
정치운동

‘낭만적 이론’ 벗어나야 한다

범 여성 모임, 광역선거후보 초청 간담회

지방의회의 여성참여를 위해 한시적 조직으로 만들어졌던 <정치참여를 위한 범 여성 모임>이 지난 7월 2일 이대 경영관에서 광역선거에 참여했던 여성후보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광역의회의 8명 여성의 원 중 한 사람이 된 금옥례 씨와 낙선한 이상덕(성남 3, 신민) 씨, 이정자(영등포 4, 무소속) 씨, 전풍자(도봉 2, 무소속) 씨, 인하대 여성학 강사 이춘호 씨가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세미나에서는 여성 후보들이 실전정치를 경험하며 느꼈던 여성의 한계와 장점이 토론됐으며 정치참여를 위해 여성운동이 준비해야 할 사항이 제시되었다.

민자당의 취약지구로 알려진 성남에서 당선된 금옥례 씨는 여당 후보의 유리한 입지를 “조직이 무섭고 좋았다”라는 한 마디 말로 표현.

성남에서 21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치의원’으로 더 잘 알려져 있던 금옥례 씨는 작년 여성개발원의 정치지도자 훈련과정에 참여했던 것이 정치 경력의 전부이지만 그 동안 의사로서 환자와 접해왔던 것이 큰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금옥례 씨는 “유권자들이 병원 이름은 알면서도 자신의 이름은 모르고 있었다”면서 여성들이 자기자신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소극성은 여성들의 공통된 약점이라고 지적하고 자신을 알리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보자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뛰는 것과 평상시에 유권



자와 접하는 기회를 만들어 두라는 것이 당선자 금옥례 씨의 조언.

민자당 후보와 경합을 벌이다 낙선한 신민당의 이상덕(중랑구)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평을 들었다고. 여당과 야당, 60세와 35세, 남자와 여자, 1백5십억 자산가와 가난한 후보, 24년 거주로 지역연고가 많은 사람과 지역기반이 없는 사람의 불평등 게임이 그렇게 표현됐다는 것.

박영숙 신민당 최고위원 보좌관으로 정치가시권에서 활동하면서 “여성은 정당을 통해 출마해야 한다”고 일찍 결단했던 이상덕 씨는 이번 여성후보의 참패를 민자당의 조직적인 금권, 관권 선거 앞에서의 패배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난한 동네의 여성들은 탁아소 설치를 절실하게 부탁하면서 이 씨를 적극 지지했으나 4~50대 중산층 여성들은 어머니회 등 관변단체와 연결되면서 관권선거에 이용된 것으로 보아 계층적 지위가

여성의식의 중요한 변수라고 분석했다.

선거운동 기간 중 면목 여성상담소에서 실시한 여성 프로그램에 6백여 명의 여성이 물리는 것을 보며 지식인 여성들이 일반 여성대중과 괴리가 있음을 체험했다는 것도 이 씨가 이번 선거 실전을 통해 얻은 교훈 중 하나이다. 앞으로 지역활동에 열중하겠다는 이상덕 씨는 여성 유권자들의 정치교육과 여성비례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여성 정치 참여를 낭만적으로 생각하던 일단의 집단에 있다가 실전에 뛰어들게 된 사람의 하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정자(영등포 4, 무소속) 씨는 여성운동권이 정치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실전론을 펴며, ‘가진 건 없고 뜻은 높은’ 여성들의 맹점을 신랄하게 성토했다.

입후보 결단시기가 늦어지면 선거운동 기간을 놓쳤던 점, “꼭 이겨야겠다”는 치열한 승부욕이 없었던 점, 깨끗한

선거를 출선하기 위해 선거비용 1천만원 목표를 고집해 선거 참모들과 갈등이 있었던 점, 시민연대와 범여성 모임의 후보라는 자신의 사회운동적 경력이 여당표를 끌 수 있으리라 나이브하게 기대했던 점 등을 자신의 낙선 이유로 말한 이정자 씨는 여성들이 ‘정당 배제 무소속’ 원칙을 고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그 동안의 여성정치운동의 노선에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했다.

집권당이 기본적으로 유권자의 20%는 확보하고 있는 정치 현실을 감안할 때 “운동차원서 후보를 내세우자는 것은 나이브한 생각이었다”고 진단한 이정자 씨는 여성운동이 좋은 여성 후보가 어떤 정당이든지 정당 조직에 들어가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의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현실적인 제안을 했다.

시민연대 운동의 책임감에서 “우선 참여의 의미로 입후보했다”는 전풍자 씨는 자신이 돈도 조직도 시간도 없는 낭만적인 태도의 후보였다고 진단했다. 현수막과 홍보물 1종류만 제작하고 선거운동원 전체를 자원봉사자로 쓴 전풍자 씨는 그의 목표대로 1천만원 미만의 선거비용을 썼다. 참여의 의미로 시작했지만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당선될 지도 모른다는 꿈을 가졌었다는 그는 당선 소감까지 준비해 두었으나 낙선소감만 쓰게 되었다고 유머를 곁들였다.

전풍자 씨는 자신의 낙선 이유로 선거운동 경험의 부족, 시민연대에 대한 홍보부족, 유권자들의 도덕성 미성숙과

공식모임 해제한 <범 여성 모임>

최초 여성정치 지원조직

<정치참여를 위한 범 여성 모임>은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 의회에 여성의원을 진출시켜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뜻을 다지고자 했던 초당적인 정치참여 지원 모임이었다.

여성의 정치적 약세를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인 두번의 지방의회 선거전에서 <범 여성 모임>은 서초구 의회에 허명화 씨를 진출시키는 미미한 성과를 끝으로 공식적인 조직을 해체했다. ‘범여성’이라는 거창한 이름에 비해 얼마나 여성계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었으며 얼마나 현실적인 지원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그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여성 정치인을 지원하는 초당적인 여성들의 조직으로 최초의 것이었으며 이제껏 구호와 이론으로만 주장되던 여성의 정치참여의 과제를 실천으로 옮긴 조직이었다는 점에서 <범 여성 모임>이 여성운동에서 갖는 의미는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여성정치운동은 낭만적인 이상과 도식적인 원론에서 척박한 현실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해야 할 때임을 드러낸 실험적 조직모델이었다는 데서 <범 여성 모임>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치참여를 위한 범 여성모임>의 활동일지

- 1월 15일: 지방선거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취지로 준비모임을 시작.
- 2월 4일: 선거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 2월 20일: 「정치참여를 위한 범여성모임」 창립대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 발기인 108명)
- 3월 : 기초의회에 허명화(반포3동) 씨를 추천하고 선거운동을 지원하여 당선
- 4월 18일: 선거법개정 청원서에 대한 서명연부(총 604명)를 국회청원과에 제출
- 4월 30일: 임시총회(여성단체 협의회 강당)
- 5월 6~7일: 여성후보 공천을 위하여 실행위원이 3당총재와 면담(민자, 신민, 민주당)
- 5월 28일: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기금마련 점심모임 (뉴월드호텔)
- 6월 : 광역의회에 이정자(영등포 4구), 전풍자(도봉2구) 후보를 추천하여 선거운동 지원
- 6월 : “부패정치 씻어내고 여성대표로 무공해 정치를”라는 구호로 무공해 세제판매

배타적인 지역의식 등을 꼽았다. 또 전풍자 씨는 유인물을 나눠주며 “7번 전풍자 후보입니다. 다른 후보와 비교해 보고 찍어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의원으로는 적격일지 모르나 후보자 자질은 영 부족했다고 분석. 유권자들

에게 강한 이미지를 심어 표를 얻어내야 하는 적극적, 공격적 승부욕과 남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 후보자 성격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풍자 씨가 자신의 낙선을 분석하여 얻은 교훈 중 하나.

<김효선 기자>